

문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런 앎을 어디서 얻는가? 원인을 안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새로운 것, 체험되지 않은 것, 낯선 것은 원인이 될 수 없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는 위험, 불안정, 걱정, 공포감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불안한 상태를 없애고자 한다면,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러한 환원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안심시키며 만족하게 하고 힘을 느끼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려진 것, 체험된 것, 기억에 각인된 것을 원인으로 설정하게 된다. ‘왜?’라는 물음의 답으로 나온 것은 그것이 진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떠오른 것은 그것이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성가신 것을 없애주며 무겁고 불편한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을 찾으려는 우리의 본능은 위험, 불안정, 걱정, 공포감 등에 의해 촉발되고 자극받는다.

우리는 ‘설명이 없는 것보다 설명이 있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고 믿는다. 우리는 특별한 유형의 원인만을 써서 설명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특정 유형의 설명만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그러한 설명들이 하나의 체계로 모여져 결국 그런 설명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된다. 기업인은 즉시 이윤을 생각하고, 기독교인은 즉시 원죄를 생각하며, 소녀는 즉시 사랑을 생각한다.

- ① 이것은 우리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한다.
- ② 이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킨다.
- ③ 이것은 우리가 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 ④ 이것은 낯설고 체험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제거해 버린다.
- ⑤ 이것은 새롭고 낯선 것에서 원인을 발견하려는 우리의 본래 태도를 점차 약화시키고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를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한다.

문 2. 다음 (가)와 (나)에 따를 때, (다)에 대한 평가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이비 과학은 잘못된 과학과 분명히 다르다. 과학은 오류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한다. 과학사를 보면 과학은 항상 오류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과학적 수행에서 등장한 가설들은 관찰과 실험 등과 같은 경험적 수단에 의한 반박 시도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가설이 반박 시도를 이겨내면 그것은 잠정적으로 참이라고 인정되어 수용된다. 진정한 과학은 이처럼 반증을 이겨낸 가설들로 구성된다. 반박 시도를 통과하지 못한 가설들은 반증되었기 때문에 과학자 사회에서 폐기될 것이다. 물론 가설이 반증된 경우 원래 그것을 제안했던 과학자는 타격을 받겠지만 과학은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반증은 과학적 연구 활동의 주요 목표이며 과학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잘못된 과학의 가설들은 경험적 검사 과정을 거쳐서 거짓으로 드러난 반증된 가설들을 말한다. 그러나 사이비 과학의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사이비 과학의 가설들은 거의 항상 관찰과 실험에 의해 경험적으로 반증될 수 없다. 즉 그것들은 반증가능성을 갖지 않는다. 그 결과 사이비 과학에 속하는 어떤 가설을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발명에 관한 보도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나 이해 당사자의 발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보도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하여 왜곡, 과장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연구를 취재하고 보도할 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세계 최초”와 같은 선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그것이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다. 나는 인간유전자 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다. 나의 친구이자 유명한 생명공학자 K가 그 연구를 인정했고, 유명일간지 ○○일보도 나와 K의 말을 인용하여 “연간 수십 조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 연구 성과”라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나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연구의 핵심 부분을 논문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연구를 지지하는 소수에게만 공개할 것이다. 나의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시급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

<보 기>

- ㉠. 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경험적 검사를 거부하므로 그의 연구가 진정한 과학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 ㉡. 이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반증가능성이 없으므로 과학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 ○○일보가 K의 발언에 의존하여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
- ㉣. 이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기존 이론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과학에 속한다.
- ㉤. ○○일보가 국부를 창출할 획기적 연구라 보도한 것은 성급한 보도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문 3. 다음 글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 ~ ㉥에 보완할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이에 따라 각주를 달거나 보충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공동체’ 개념은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학으로부터 미국의 신공동체주의, 나아가 의사소통에 관한 다양한 윤리학에 이르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온갖 철학적 개념들이 뒤섞여 형성되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처럼 그 의미가 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공동체’ 개념이 변질하게 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미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 ‘공동’의 의미를 설명할 것.)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서나 실질적인 공동체 운동에서나, 일반적으로 ‘공동’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속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소속’, ‘집단 속성’, ‘고유성’, ‘정체성’ 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은 이런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 ‘공동’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를 예시할 것.) 이처럼 공동의 것은 고유성이나 정체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동체’의 어원 즉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주장하는 바가 더욱 명백해진다. (㉢ ‘코무니타스’의 원래 의미를 명시할 것.) 그러나 우리는 이와는 거꾸로 공동체를 인식해왔다. ‘통일된 단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원을 살펴볼수록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가령 코무니타스는 ‘무누스’[munus]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 ‘무누스’의 의미를 명시할 것.) 이 점에서 공동체의 원천은 공동 소속이나 공동 속성이 아니다. 그 원천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무엇이다. 공동체는 전유물이 아니라 내주어야 할 것이며 재산이 아니라 빚이다. 그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변화이다. 그것은 우리만의 공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는 우리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을 제한하는 경계를 열어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와 다른 존재와 접촉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무엇이다. 공통 공간과 정립된 전통, 기존 문화를 초월하여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공동체는 결코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지닌 원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공동체’를 공동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찾아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집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공동체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명시할 것.)

- ① ㉠ - ‘공동’은 ‘속성’, ‘가지고 있는 것’, ‘고유한 것’ 등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 ② ㉡ - 현대어 사전들에서 ‘공동’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고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③ ㉢ - 어원적으로 볼 때 ‘코무니타스’는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단일체를 의미한다.
- ④ ㉣ - ‘무누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무나 역할을 의미한다.
- ⑤ ㉤ - 진정한 공동체란 정체성의 장벽을 허물고 다른 공동체에게 속한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접촉하는 공동체이다.

문 4. 다음 글을 읽고 <사례>에 등장하는 가희와 나영에 대해서 옳게 추론한 것은?

부러움과 질투심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감정 상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둘을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어떤 종류의 물건 X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이때 가능한 상황은 다음 네 가지다.

- (1) 갑과 을 모두 X를 소유한 경우
- (2) 갑은 X를 소유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은 경우
- (3) 을은 X를 소유하지만, 갑은 그렇지 않은 경우
- (4) 갑과 을 모두 X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용해서, ‘X와 관련해 갑은 을을 부러워한다.’와 ‘X와 관련해 갑은 을을 질투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부러움에 대한 정의> X와 관련해 갑이 을을 부러워한다면,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한다.

- 갑은 (1), (2), (4) 중에서 (2)를 가장 선호하고 (1)을 가장 덜 선호한다.
- 갑은 (2), (3), (4) 중에서 (2)를 가장 선호하고 (3)을 가장 덜 선호한다.

<질투심에 대한 정의> X와 관련해 갑이 을을 질투한다면, 다음 두 가지가 성립한다.

- 갑은 (3)보다는 (1)을 선호한다.
- 갑은 (2)와 (4)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지는 않는다.

< 사 례 >

설을 맞아 가희는 어머니로부터 새 옷을 받았지만 나영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슬퍼하던 나영에게 먼 친척 할아버지가 찾아와 가희가 얻은 옷과 똑같은 종류의 옷 한 벌을 선물해 주었다. 옷과 관련해, 가희는 나영을 질투하지만 나영은 가희를 부러워한다. 단, 가희의 질투와 나영의 부러움은 위의 정의를 따른다.

- ① 가희는 나영의 새 옷이 없어지길 바랄 것이다.
- ② 나영은 가희의 새 옷이 없어지길 바랄 것이다.
- ③ 나영은 자신과 가희의 새 옷 모두 없어지길 가장 바랄 것이다.
- ④ 나영은 둘 다 새 옷을 갖고 있는 것이 모두 새 옷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⑤ 가희는 자신의 새 옷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영의 새 옷이 없어지길 바랄 것이다.

[예제] 다음 글의 A가 반드시 참이 되도록 ㉠~㉥ 부분을 수정할 때 적절한 것은?

2주 전 조사를 의뢰 받은 부식제 누출 사고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가 의뢰한 사안의 핵심에는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관련자의 범위를 규명하는 일과 더불어 위험물질 관리시스템 RE-201과 이 사고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 있으며, 우리의 분석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자들의 담당 업무를 분석한 결과 ㉠ 안전관리팀의 강 과장과 시설연구소의 남 박사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 사고 당일 당직 책임자였던 도 부장과 박 과장에게는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의 공장 전체의 부식제 분배 시스템 작동 상황을 공학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 만일 이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안전관리팀의 강 과장에게 있고 또 이 사고가 위험물질 관리시스템 RE-201과 관련되었다면, 부식제 누출 사고는 공장의 S 구역에서만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 누출 사고는 S 구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T와 U 구역의 누출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낸 것은, ㉤ 만일 강 과장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면 남 박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단 앞의 분석을 토대로 [A] 이번 사고가 RE-201과 관련되었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① ㉠을 ‘안전관리팀의 강 과장과 시설연구소의 남 박사 모두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로 고친다.
- ② ㉡을 ‘사고 당일의 당직 책임자였던 도 부장과 박 과장에게도 책임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로 고친다.
- ③ ㉢에서 ‘관련되었다면’을 ‘관련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로 고친다.
- ④ ㉣을 ‘누출 사고는 S 구역이 아니라 T와 U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로 고친다.
- ⑤ ㉤을 ‘남 박사에게는 이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 없다’로 고친다.

■ 문제 해설 ■

정답 ⑤

[정답해설]

‘~RE-201 관련’이 반드시 참이기 위하여 수정해야 할 전제를 찾는 문제이다. 제시된 글의 논증을 우선 구성해보자.

㉠ : 강 과장 책임 ∨ 남 박사 책임

㉡ : ~도 부장 책임 ∧ ~박 과장 책임

㉢ : (강 과장 책임 ∧ RE-201 관련) → S 구역 제한 사고

㉣ : ~S 구역 제한 사고

㉤ : 강 과장 책임 → 남 박사 책임

㉢과 ㉣을 통하여 1) ‘~강 과장 책임 ∨ ~RE-201 관련’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명제로부터 ‘~RE-201 관련’이 반드시 참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언지 배제법에 의하여) ‘강 과장 책임’임을 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 명제에서 ‘~남 박사 책임’이라면 ‘강 과장 책임’이 반드시 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